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해설 및 채점기준(인문사회계열)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문항번호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독서, 동아시아사
	핵심개념 및 용어	경쟁/협력/공존/다양성/사회 진화론/생물 진화론/공정한 경쟁
예상 소요 시간	45분 / 전체 90분	

2. 문항 및 자료

[문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㉔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다. 경쟁이란 것은 자존을 위한 싸움이니,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와 더불어 투쟁함으로써 혹은 살아남고 혹은 멸망하는데, 그 큰소리침은 자연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자연의 선택이라는 것은 물(物)이 투쟁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그 존재함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 까닭이 있고 반드시 자연에서 얻은 몫이 있을 것이다.

‘물경(物競)’은 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천택(天擇)’은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천지자연의 이익을 먹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서로 부딪치면서 사람과 동물은 각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된다. 처음에는 종(種)과 종이 싸우며, 나아가 집단과 집단이 싸우게 된다. 약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림을 당한다. 스스로 살아남아 종을 남기게 되는 것은 반드시 강인하고 지혜와 기교가 뛰어나 당시의 천시·지리·인사에 가장 잘 적응한 자이다. 이는 동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도 본래 동물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생물계에서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몸과 마음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인간도 모든 생물과 그 근원을 같이 하며 그 몸과 마음의 강약에 따라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승리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무릇 인류계에서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생기며, 다른 인종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그 인종의 우열로 귀천의 차이가 생겨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생기는 권력 경쟁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맹목한 성질을 떨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도덕에 반하고 법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중학교 때의 생물책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 놓고 돌아갔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입터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 줌의 재로 분해되었다. 그 반 줌의 재를 받아 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반 줌의 재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다. 영호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 내리며 울었다.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뇨.”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먹이 피라미드야요.”

내가 말했다.

“그 효용이 뭐냐?”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야요.”

“설명을 해 봐라.”

“이 맨 밑이 녹색식물로 일 단계야요.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이 이 단계이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 동물이 삼 단계, 또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 동물이 맨 위의 사 단계야요.”

“영호야.”

아버지는 말했다.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 해요.”

영호가 말했다.

“형처럼은 못 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우리는 이 맨 밀야요.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세 층이나 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게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 줌의 재를 썼던 흰 종이를 물 위에 띄웠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햇볕이 따듯했다.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다.

- 조세희,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다윈은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 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참새목의 작은 조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핀치가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 왔던 방식의 가치를,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 이은희,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한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킨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이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다.

- 김범목·윤용아,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제 1] ㉔와 ㉕를 요약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㉔와 ㉕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그 이유를 밝히시오.

(500±25자) [55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인간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제시되어온 경쟁과 그것의 폐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한 경쟁’ 과 ‘다양성의 공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지금껏 인류는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국가 간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방식을 통해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택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이 한편으로 인류의 지성과 능력을 함양하고 물질적 생산력과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는 인류 진보의 수단과 방법이라 믿어왔다.

제국주의 시대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우승열패(優勝劣敗)의 경쟁 논리는, ‘사회 진화론’으로 포장되어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국가 지배를 정당화 한 바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도상에서도 경쟁 논리는 정당한 것,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생물 진화론’을 펼친 다윈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경쟁을 말한 바 없다. 생물 진화론의 핵심은 다양성을 토대로 개체의 변이가 누적되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었다. 즉 생명체에는 우열이 없으며 경쟁의 결과 확실성이 아닌 다양성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 종 간에도 서로를 몰아내기 위해 반목하고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다양성의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과 화합이 바로 생태계의 지속 가능 원리이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경쟁이 공정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경쟁은, 그 과정에서 우승열패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에서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건 없는 경쟁에서는 규칙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설령 그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아울러 공정한 규칙에 따른 경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되고 승자가 승리의 열매를 독식하는 때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경쟁은 한 번만 치르면 끝나는 일회성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인생의 관문에서는 끝없이 경쟁이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경쟁에서 한 번 패배한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부여하는가 하면 그 답은 회의적일 것이다.

수험생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 논리와 그 결과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공존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과거 경쟁에서 있었던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여 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㉞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영역	서양 문물의 수용, 사회 진화론
	성취기준 · 성취수준	[12동사04-03]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
제시문 ㉔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성취기준 · 성취수준	영역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제시문 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영역 성취기준 · 성취수준	영역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㉖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영역 성취기준 · 성취수준	영역 비판적 읽기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학	교육과정	쓰기, 작문의 원리와 실제, 분석적 글쓰기, 문제 해결적 글쓰기
	영역 성취기준 · 성취수준	영역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교양 교과 교육과정 [논술] [12논술02-04]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12논술04-05] 퇴고의 방법을 익히고 이에 따라 논술문을 완성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교과서, 기타	동아시아사	안병우 외 8인	천재교육	2020	161	㉔	○
	동아시아사	김태웅 외 6인	미래엔	2023	155	㉔	○
	동아시아사	이병우 외 6인	비상	2020	150	㉔	○
	문학	김동환 외 6인	천재교과서	2021	241-242	㉕	×

	독서	방민호 외 5인	미래엔	2020	176-181	㉠	○
	독서	한철우 외 6인	비상	2020	71-72	㉡	○

5. 문항 해설

제시문	발췌 부분 및 해설
㉠	<p>경쟁을 통해 진보할 수 있다. 개체의 생존은 환경 적응의 결과로 자연의 선택이다. 따라서 우월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배하는 자연법칙은 동식물과 인간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얻게 된 강자의 권리는 정당하며 발달한 사회에 속한 개인은 그 능력에서도 우월하다. 따라서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경쟁을 통해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p> <p>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동아시아의 사회 진화론」의 자료로 제시된 가토 히로유키의 『강자의 권리 경쟁』, 옌푸의 『천연론』, 유길준의 『경쟁론』을 종합·재구성함</p>
㉡	<p>초식동물이 녹색식물을 먹고 작은 육식 동물이 초식동물을 먹으며 큰 육식 동물이 작은 육식 동물을 먹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피라미드처럼 계층화되어 있다. 인간 사회도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처럼 서열화되어 있다. 영호네 가족은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며 강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자녀는 부모의 복제물이기에 그들의 계층 역시 자녀 세대에 대물림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피라미드에서는 경쟁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p> <p>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를 발췌함</p>
㉢	<p>진화론에서 다윈은 변이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변이의 누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결과 변화가 발생하며 모든 생명체의 우열은 없다. 생물 종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확실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멸종의 위험도 커진다. 반면 생물 종의 다양성 증가는 여러 생물 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공존을 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생물 종 사이에도 경쟁보다 공존을 통해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공생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진보라 할 수 있다.</p> <p>이은희, 『거꾸로 생각해 봐 2-세상도 바뀔 수 있어』에 수록된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을 발췌·재구성함</p>
㉣	<p>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경쟁을 낳는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p>

	성을 향상해 왔다. 따라서 경쟁은 부정과 배제가 아니라 협력적 상호 작용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조건과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김범목·윤용아,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에 수록된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발췌·재구성함

[문제 1] ㉠과 ㉡를 요약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와 ㉣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그 이유를 밝히시오.

본 문항의 답안은, 경쟁의 논리를 보여 주는 ㉠과 경쟁의 폐해를 보여 주는 ㉡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와 ㉣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와 ㉣를 절충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 ㉠은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한다. 자연법칙에 따르면 경쟁 환경에 먼저 적응한 자는 생존하고 적응에 실패한 자는 멸망한다. 인간도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에 지배받으며, 강자의 권리와 자유가 증대될수록 인류의 진보와 발달도 촉진된다. 인종 사이, 국가 사이 경쟁의 결과 귀천의 차이도 생기게 된다.

제시문 ㉡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처럼 인간 사회도 피라미드처럼 계층화되었다고 본다. 영호네 가족은 사회의 먹이 피라미드에서 최하층에 속해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에서 영호네 가족은 위층의 포식자들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복제물 이기에 부모의 계층도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며 자신들이 속한 계층에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시문 ㉢와 ㉣에서 문제 상황은 경쟁 사회의 폐해이다. 제시문 ㉢에 따르면 자연법칙에 따른 경쟁의 결과, 환경에 먼저 적응한 자는 생존하고 적응에 실패한 자는 멸망한다. 인간계도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논리에 따라 강자의 권리와 자유가 합리화되고 인종의 우열과 귀천의 차이가 생긴다. 강자들은 이것을 인간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라고 포장하지만, 제시문 ㉣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쟁 사회에서 먹이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속한 사람은 열등한 자로 천시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계층의 대물림으로 인해 영호네 가족은 경쟁 상황에서 노력과 능력으로 계층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시문 ㉣는 다윈의 진화론이 변이의 다양성에 주목한다고 본다. 생물 종은 다양한 변이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에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제한된 자원 조건에서 더 많은 수의 종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원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으로 서로 다른 종을 없애는 적대적 경쟁을 선택하기보다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즉 경쟁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의 공존이 생물 종이 진화하는 방향인 것이다.

제시문 ㉔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유 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한 결과 인류가 진보할 수 있었다.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과 협력으로 개인의 의욕을 자극하고 개인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경쟁을 통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인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해 왔다. 경쟁의 지속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조건과 규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쟁의 폐해라는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㉔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은 패배한 경쟁의 상대가 승복할 수 없다. 패자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자 역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다하여 승리한 경쟁의 결과를 떳떳하게 여길 수만도 없다. 따라서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 된다. 또한 ㉔에서 언급했듯이 한정된 자원 조건 속에서 약육강식의 경쟁과 그 결과 적자만 생존하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를 모두 버리는 경쟁만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이를 축적하여 변화를 추구하며 그 결과 공존과 다양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연은 다른 종을 제거하여 자원을 독점하는 경쟁을 선택하는 대신 공존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존의 논리는 경쟁의 획일성보다 공존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은 이렇듯 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다양성과 공존의 원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6. 채점 기준

1) 영역별 평가 기준

영역	내용	배점
이해력	제시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27.7
논증력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21.9
표현력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5.4

2) 영역별 배점 기준

[문제 1] (55점)

구분	A	B	C	D	F
이해력	27.7	20.8	14.4	7.4	0
논증력	21.9	17.4	12.3	6.8	0
표현력	5.4	3.9	2.3	0.6	0

3) 영역별 채점 기준

(1) 이해력(27.7점)

평가 요소

※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① ㉠을 적자생존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로 이해하였다.
- ② ㉡의 화자가 사회적 위계서열의 최하위에 놓여 있음을(불평등의 피해자임을) 이해하였다.
- ③ ㉢에서, 진화론의 핵심이 다양성의 추구와 상호 공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 ④ ㉣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회 전체의 성장에 기여함을 이해하였다.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혹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논증력(21.9점)

평가 요소

※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는가?

- ① ㉗가 제시한 인간 사회의 적자생존 논리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㉘에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과 서열화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③ ㉗에 제시된 경쟁의 결과, ㉘에 제시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음을 적절히 논증하였다.
- ④ ㉘에 제시된 다양성의 추구하고 공존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적절히 논증하였다.
- ⑤ ㉘에 제시된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적절히 논증하였다.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⑤ 중 4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⑤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⑤ 중 1~2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혹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3) 표현력(5.4점)

평가 요소

※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 ① 한글맞춤법(표준어, 띄어쓰기)을 잘 지켰는가.
- ②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여 의미 전달이 분명한가.
- ③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였는가.
- ④ 문장 간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 평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평가 요소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평가 요소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평가 요소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평가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혹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답안 분량에 따른 감점 기준

- 525자 초과: 표현력 한 등급 낮춤
- 475자 이상~525자 이하: 감점 없음
- 300자 초과~475자 미만: 표현력 한 등급 낮춤
- 300자 이하: 전 영역 F 등급, 0점 처리함

7. 예시 답안

【예시답안 ①】

㉑는 자연계에서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동식물 사이에서 강한 종이 약한 종에 승리하는 것과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냉혹한 경쟁의 결과 우열이 생긴다는 것이다. ㉒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주인공의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진 계급 사회에서 자신들이 최하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㉒의 저자는 흔히 적자생존 이론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다윈의 진화론이 실은 생물 종의 다양성과 공존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㉑의 저자 역시 경쟁이 반드시 적자생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라고 말한다.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화와 공존이 종 전체의 생존에 기여하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보다는 다양성의 증대를 통한 공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한정된 자원으로도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10자)

【예시답안 ②】

㉑는 자연계에서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동식물 사이에서 강한 종이 약한 종에 승리하는 것과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냉혹한 경쟁의 결과 우열이 생긴다는 것이다. ㉒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공정한 바탕 위에서 행해지지 않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주인공의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진 계급 사회에서 자신들이 최하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㉑의 저자는 경쟁이 반드시 적자생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㉒의 저자가 말했듯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는 적대적 경쟁보다는 다양성과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된 규칙 하에서 경쟁을 할 때 인간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507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해설 및 채점기준(인문사회계열)

[덕성여자대학교 문항정보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문항번호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철학,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주의 정의관, 공정으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재분배, 사회 불평등, 정부 개입
예상 소요 시간	45분 / 전체 90분	

2. 문항 및 자료

[문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㉞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 이들은 공평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롤스는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와 우선성’을 추구하는 제1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성격을 지니며 효율성과 복지에 대하여 ‘정의의 우선성’을 추구하는 제2원칙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탐구하였으며, 재화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만일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노동하여 재화를 취득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받았다면 그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화를

획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으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㉔ 성과 연봉제란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 체계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일한 햇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동일 직급 내에서도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스스로가 기업 성과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성과 연봉제는 기업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하였는데, 2010년 6월 도입한 간부직 성과 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 확대를 통해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㉕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천하는 무장애 도시를 소개합니다.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A시입니다. A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금,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㉖ 핀란드 유명기업의 부사장 B는 제한 속도 50km/h 구간에서 75km/h로 주행하다 적발됐는데, 벌금이 11만 6000 유로(당시 환율로 1억 8000만 원)였다. 육가공 식품업체 상속자 C는 제한 속도 40km/h 구간에서 80km/h로 달렸다가 17만 유로(당시 환율로 2억 6000만 원)를 내야 했다.

핀란드 형법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감옥형, 누진적 벌금형, 정액 벌금형 및 경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누진적 벌금형은 교통 법규 위반, 경제 범죄 등에도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제재 수단이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사회 보장 번호를 조회하여 소득 수준과 자녀 수를 확인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여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벌금 산정 방법은 우선 월 소득에 1/60을 곱하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곱한다. 이후 기초 공제액과 자녀 공제액을 삭감하여 최종 벌금액을 제시한다.

㉔ 자유 경쟁 체제가 극단적인 강자의 논리나 불평등 재생산 체제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복지 정책이 강화될 때는 정부의 간섭이 증가하여 기업 성장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면 기업의 고용 상황은 경직되어 실업이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전문직과 숙련 노동자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이다.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소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 정책보다 시장 경제 체제가 더 효과적이다.

[문제 2] ㉑에 나타난 두 학자의 관점을 요약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 ㉒, ㉓, ㉔, ㉕를 분류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45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분배를 강조하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개인의 소유와 경쟁을 강조하는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㉒, ㉓, ㉔, ㉕를 분류하고 논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㉑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롤스의 정의관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고자 한 노직의 정의관을 구분하여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㉒는 성과 연봉제를 설명한 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소유의 차이를 인정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직의 정의관에 해당한다.

제시문 ㉓는 무장애 도시를 소개하는 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므로 롤스의 정의관과 일치한다.

제시문 ㉔는 핀란드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누진적 벌금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롤스의 정의관에 해당한다.

제시문 ㉕는 분배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경제적 약자의 처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므로 자유와 경쟁을 통한 정의를 강조한 노직의 정의관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시문 ㉑를 읽고 롤스의 정의관과 노직의 정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롤스의 정의관에

해당하는 제시문 ㉔, ㉕와 논지의 정의관에 해당하는 제시문 ㉓, ㉔를 분류하고 논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㉔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영역/요소	정의의 의미, 정의관 (공정으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재분배, 우대 정책, 공정, 자유 지상주의
	성취기준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할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시문 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영역/요소	경쟁, 생산성 향상, 자원 배분
	성취기준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㉔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사회·문화]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영역/요소	사회 불평등, 사회 복지, 정의
	성취기준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교양교과 교육과정 [철학]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영역/요소	법, 사회 규범, 재분배, 복지, 정부 개입
	성취기준	[12철학04-02] 인간의 삶이 살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올바른 규범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만남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독서]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
	영역/요소	소득 불균형, 분배 정책, 시장 경제 체제, 정부 개입, 정부 실패
	성취기준	[10국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교과서 및 참고도서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97	㉠	○
	통합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18	184	㉠	○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8	178	㉡	○

		12인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교육	2018	171	㉠	○
	철학	홍윤기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76	㉡	○
	국어	이삼형 외 7인	지학사	2018	267	㉢	○

5. 문항 해설

제시문 ㉠은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시문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관과, 개인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공동선에 이득이 된다는 노직의 정의관을 제시한다. 두 철학자 모두 자유주의 정의관에 입각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와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는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문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 연봉제가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높인다고 설명하는 노직의 정의관에 해당한다.

제시문 ㉣는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무장애 도시를 소개한 내용이다. 제시문은 장애인, 고령자를 배려하여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롤스의 정의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제시문 ㉥는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시문은 핀란드에서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누진적 벌금형의 사례를 설명한다. 제시문 ㉦는 소득에 따라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 법규를 소개하는 것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롤스의 정의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제시문 ㉧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시문은 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그 결과 경제적 약자의 처우가 악화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됨을 주장한다. 제시문 ㉨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직의 정의관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1) 영역별 평가 기준

구분	내용	배점
이해력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17.7
논증력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타당성)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22.4
표현력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적절한가?	4.9

2) 영역별 배점 기준

[문제 2] (45점)

구분	A	B	C	D	F
이해력	17.7	13.6	9.7	6.1	0
논증력	22.4	17.3	13.3	8.7	0
표현력	4.9	3.8	2.1	0.4	0

3) 영역별 채점 기준

(1) 이해력(17.7점)

평가 요소

<평가 요소>

- ❖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차등의 원칙을 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롤스의 관점과, 개인의 노력을 통한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노직의 관점을 적절하게 이해하였는가에 평가 초점이 있다.
- ❖ 위 두 학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을 바르게 분류하여 논술했는가에 평가 초점이 있다.
- ❖ 주요 기준은 아래의 5개 항목과 같다.

- ① 제시문 ㉠에 나타난 두 학자의 관점을 구분하고 설명하였는가?
- ② 노직의 관점에서 제시문 ㉡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했는가?
- ③ 롤스의 관점에서 제시문 ㉢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했는가?
- ④ 롤스의 관점에서 제시문 ㉣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했는가?
- ⑤ 노직의 관점에서 제시문 ㉤의 내용을 제시하여 논술했는가?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 ⑤ 평가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⑤ 평가 기준 중 4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⑤ 평가 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⑤ 평가 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⑤ 평가 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논증력(22.4점)

평가 요소

<평가 요소>

- ❖ 롤스와 노직, 두 학자의 관점에 따라 ㉠~㉣ 제시문을 분류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 롤스의 관점과 관련한 제시문에서 주요 논거(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를 적시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 노직의 관점과 관련한 제시문에서 주요 논거(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부당하다는 점)를 적시하여 논증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 ❖ 주요 기준은 아래의 4개 항목과 같다.

- ① 제시문 ㉠에서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직의 관점과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 ② 제시문 ㉡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물리적·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무장애 도시에 대한 설명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롤스의 관점과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 ③ 제시문 ㉢에서 국가가 소득에 비례한 차등의 원칙을 두어 누진적 벌금형을 적용한 사례를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롤스의 관점과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 ④ 제시문 ㉣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국가에 의한 분배는 부당하다고 보는 노직의 관점과 연계하여 논증하고 있는가?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3) 표현력(4.9점)

평가 요소	
-------	--

<평가 요소>

❖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적절성, 올바른 맞춤법, 접속사, 주어-서술어 호응 등이 정확한가를 평가하며, 주요 기준은 아래의 4개 항목과 같다.

- ① 맞춤법은 정확한가?
- ②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 ③ 주어-서술어 호응 등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 ④ 비속어 등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배점	채점 기준
A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3개만 충족한 경우
C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D	①, ②, ③, ④ 평가기준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F	①, ②, ③, ④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4) 답안 분량에 따른 감점 기준

- 525자 초과: 표현력 한 등급 낮춤
- 475자 이상~525자 이하: 표현력 감점 없음
- 300자 초과~475자 미만: 표현력 한 등급 낮춤
- 300자 이하: 전 영역 F 등급, 0점 처리함

7. 예시 답안

㉑에서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차등의 원칙을 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한다. 한편, 노직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추구한다. ㉒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물리적·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무장애 도시의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롤스의 관점에 상응한다. ㉓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핀란드의 누진적 벌금형을 설명하는데, 이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롤스의 관점과 연결된다. 반면, ㉔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 연봉제가 생산성과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직의 관점에 해당한다. 또한, ㉕는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됨을 주장하므로 국가에 의한 분배를 부당하게 보는 노직의 관점에 부합한다.

(513자)